

목포시, 미래 위한 필수과제 ‘목포-신안 통합’ 총력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9656억
통합추진위 활용 통합 공감대 형성
주민편의 위주 협력과제 집중 발굴
양 지역 축제 참여 등 280여회 교류

목포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승부수로 ‘목포-신안 통합’을 설정하고 실질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통합효과 분석 연구 결과 행정부문에서는 비용 63억 대비 편익 9735억원,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656억원이라는 효과도 나왔다. 이는 취업과 고용 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도출된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한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으로 직원, 자생단체, 시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3년 목포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안군 14개 읍면의 자생조직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상생교류를 통해 목포신안 통합 공감대 형성 및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양 지역의 축제 참여, 농촌일손돕기를 비롯 김장나눔과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80여회에 5900여 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민간통합 활동기구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욱)에서도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메신저 양성 프로그램인 어울아가카데미 개최, 찾아가는 섬 봉사활동, 귀성객 대상 목포신안 통합 효과 홍보, 양 지역 주민단체 교류 등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양 시군의 통합분위기 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과제 25건을 채택하고 상생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인 ‘목포·신안 상생협력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양 시군이 채택한 상생협력과제는 △신안 섬 주민편의 화장로 증설(1기) 및 목포시민·신안군민화장로 우선예약시스템 도입 △목포·신안 관광상품 공동개발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군 친환경 농산물 구입 △목포시 학생 신안 농어

촌학교 유학프로그램 운영 등 25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신안군민의 4일장 문제 해결을 위해 화장로 1기 증설과 목포시민·신안군민 화장장 우선 예약 시스템을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시군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신안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신안군 친환경 농산물을 10억원 상당 구입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목포신안 통합에 한발 더 나아가 무안·반도 통합 광역 행정체제 구축으로 서남권 지역의 공동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 160명 선착순 모집

무안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APP)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활용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가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안군민으로 만성질환 관리(고혈압·당뇨) 및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사람, 건강 위험요인(고혈압·당뇨·비만)을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선착순 160명을 모집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전 건강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소 전문가(간호사)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16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무안군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전화 접수(061-450-5062)로 하면 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AI-IoT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 만 4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대상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축하금 지급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5400만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 지원으로 7쌍의 부부에게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1004점 정원해설사 교육생 선발 신안군, 24일까지 접수

신안군은 2025년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4기(토요일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교육은 ‘1섬 1정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안군의 정원도시 도약과 정원문화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은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신안군민 및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교육 내용은 정원 스토리텔링, 해설 실천 훈련, 1004점 정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포함한다.

교육생 모집은 24일까지이며 최종 교육생은 31일 발표된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출석률 70% 이상을 기준으로 수료가 인정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목포↔제주 ‘씨월드마린II호’ 취항 씨월드고속훼리, 물류 운송효율↑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종훈)는 ‘씨월드마린II호’가 지난 14일 첫 출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취항한 씨월드마린II호는 씨월드마린 I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운항 시스템과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며 물류 운송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면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다.

RO-RO 화물선 씨월드마린II는 총톤수 9952톤의 대형 선박이며 승용차 기준 321대를 선적할 수 있으며 기상이 좋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다.

특수·대형화물, 캠핑카, 승용차 또는 SUV차량, 잡화 선적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의 구축이 완비가 되어 있다.

이종훈 씨월드고속훼리 대표는 “씨월드마린II호 취항을 계기로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 항로상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 2척과 물류 운송의 자존심 RO-RO 화물선 씨월드마린II호 취항으로 독보적인 물류 경쟁력과 네트워크 확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 항로의 ‘Number1 화물 수송 루트’로서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1일 강진군 지역사회 대표 봉사단체인 청록회가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청록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

강진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 단체인 청록회(회장 박필용)가 지난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

은 강진읍과 군동면 일대의 3개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청록회 회원과

청록부녀회 회원 60여명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나르고 각 가정에 전달하며 이웃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박필용 청록회 회장은 “사랑의 연탄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무릎관절·눈 수술비 지원

강진군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안과 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주요 안과 질환의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각 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

한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한다. 수술비 지원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진료비, 수술비 등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을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일상 복귀와 재활을 돕는다.

지원 신청은 강진군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2~3주 이내에 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수술대상자 확정 통보를 하며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면 재단에서 병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 전에 해야 하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에는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수술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정기찬 기자